

『哲學』概念의 變遷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

金午星

哲學의 普遍的 特性을 哲學史 上에서 비저내려든 史家들의 努力은 徒勞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哲學은 그 어느 時代, 어느 哲學體系를 勿論하고 그가 特殊科學과 自己를 區分하고있는 以上 그 對象이나 方法을 어느 特殊的인 것에서 求하지 안코 어대까지나 一般的, 普遍的, 究極的인 것을 志向하고 있는 것이니 사람들이 哲學에 向하여 時空을 超越한 普遍的 定義를 要求하는 것도 決코 無理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哲學 自體의 歷史 上에서 그 一般的 特性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哲學을 한 개의 學問 形態로서 外部적으로 一致되는 定義를 求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은 可能的 일인가? 定義를 비저내는 것은 論理學의 일이다. 그런대 普通 論理學에 依하면 어떤 한 개의 事象속에서 完全한 定義를 查저내려면 그 事象의 上位 概念 즉 그 事象을 包括할수있는 類概念과 그 事象이 다른 모든 事象과 明確히 區分되는 特徵 즉 種概念이 주어져 있지 안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物理學的 現象이 完全히 定義되려면 그 直 上位에 物理的 現象을 包括할만한 一般 自然科學的 現象이 한 개의 類概念으로서 주어져 있어야하며 또한 物理學 自體가 같은 科學, 즉 數學, 化學, 生物學 등과 明確히 區別되는 自己 特性으로서의 種概念을 갖고 있지 안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는대서만 物理學은 自然科學의 一部 學問으로서 規定되는 同時에 또한 같은 科學들과 區分되는 物理學의 特殊性이 明確히 定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論理的 條件이 哲學이 주어져 있는 것인가? 哲學을 包括할 哲學의 上位 概念은 무엇일까? 그리고 哲學이 다른 學問과 區分되는 種의 特徵은 무엇일까?

哲學의 上位 概念으로서 우리는 學問(Wissonschaft)을 볼 수 있다. 哲學은 學問 形態의 하나이며 學問 가운데는 哲學만이 아니고 모든 科學 藝術 等等

이 包括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哲學을 學問 形態의 한아로 보는대는 커다란 困難이 있다. 歷史上으로 보아 最初의 哲學은 哲學 그것이 唯一의 學問이요, 類概念으로서의 學問과 種概念으로서의 哲學이 區分되어 있지안었다. 希臘人에게 잇서는 그들의 知的 活動은 全一的이였고 今日과 가튼 知的 分化가 업섯다. 필로소피-는 모든 知를 包含한 全一的인 知的 活動이였든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近世에 와서도 있다. 데칼트, 헤겔, 스펜사-等の 宇宙論的 傾向은 다른 學問 즉 特殊 諸 科學, 藝術, 道德, 宗教 等を 哲學의 一部分으로 보는 全一的 體系이였다. 여기에는 哲學의 上位 概念에 該當한 類概念이 成立되지 못한다. 따라서 哲學이 다운 學問과 五分되는 種概念으로서도 成立될 수 업는 것이였다. 이리하여 哲學의 定義가 困難하게 되는 것이다. 또 設或 哲學이 다른 學問과 區分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다시 哲學이 果然 學問에 屬할 수 잇을까가 疑問이다. 希臘人에 잇서는 哲學은 한 개의 形而上學이였다. 그러나 近代人에게 잇서는 形而上學은 學問으로서 不可能한 것이였다. 그리고 스토아學派, 에피쿠로스學派에 依하면 哲學은 어떤 學的 體系가 아니요, 安心立命을 爲한 한 개의 處世術에 不過한 것이다 近代에 잇서도 哲學이 哲學적으로 論究됨을 즐겨 認定치 안는 사람이 업지 안다. 보-세에 依하면 哲學은 한 개의 『大悟』로서 宗教의 한 階段으로서 滿足한 것이다. 소펜하우엘은 哲學은 意然으로부터 解說하기 爲한 한 개의 直接이요, 學的, 方法的 第作으로서 說明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니-체에 잇서는 哲學은 嚴格한 意味의 學問體系가 아니라 盼義의 人生觀에 지내지 안혔다. 最近의 實存 哲學도 學的이라기보담 차라리 藝術的, 文學的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哲學은 學問이란 上位의 類概念에 從屬됨에는 狹作을 느끼지 안힐 수 업으며 學問은 그 複雜한 淵泉과 奔放한 着想을 가진 哲學을 自體의 下位에 잇는 種概念으로서 責任지기에 難色을 느끼지 안힐 수 업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哲學의 定義를 全 哲學史에 求하지말고 오즉 近代에 局限해서 찾는다면 以上の 困難을 免할 수 잇을 것이다.